

## 연령대별 유방암 위험지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이 동 숙\*·손 행 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관습 뿐 아니라 식생활 습관도 점차 서구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에서의 각종 만성 질환은 사회의 관심을 모으며 날로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다. 악성 종양 또한 이러한 추세에 따라 명백히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성 인구에 있어서의 유방암은 그 대표적인 질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중앙 암 등록사업 200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Korean National Cancer Center, 2003),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등록건수는 1995년 3000여건이던 것이 2002년 8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암중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에는 12.1%로 3위이던 것이 2002년에는 16.8%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유방암 발병에 대한 정확한 위험지각이 부족한 실정이다(Hopwood, 2000). Katapodi, Lee, Facione와 Dodd(2004)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42개의 유방암 위험지각 관련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의 여성들이 자신의 유방암 발병 위험에 대해 낙관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Aiken 등(1995)도 유방암에 이환되지 않은 33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에 대한 위험지각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들이 자신의 유방암 위험에 대해 낙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Leventhal, Kelly와 Leventhal(1999)은 개인의 위험지각은 실제적 위험과 상당히 차이가 나며 이러한 위험지각을 실제적 위험 지각으로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위험지각은 이론적으로 건강행위의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Leventhal et al., 1999). 즉, 유방암 발병에 대한 위험지각은 결과적으로 유방암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행위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매달 유방 자가검진 실천율은 0.1%에 불과하며(Choi, 1994), 우리나라 3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Suh, Jung, So와 Tae(1998)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방암 자가검진율은 15-45%, 유방촬영술의 수진율은 5-27%, 전문의 유방검진은 5%-29%로 유방암과 관련된 건강행위 이행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방암 검진 이행율이 매우 낮고 유방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Sadler, Ryujin, Ko &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투고일 2004년 4월 23일 심사위원회일 2004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9일

Nguyen, 2001). Choi(1994)는 이와 같이 낮은 유방 자가검진 이행율의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의 유방암의 이환 가능성의 불인정 즉, 유방암 발병에 대한 위험지각 부족의 문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유방암에 대한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것은 연령, 교육수준, 인종/문화, 걱정/두려움 등이었으며(Katapodi et al., 2004), 가족력, 신체증상도 영향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Aiken et al., 1995). 특히 연령의 측면에서 볼 때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건강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Arnet, 2000; Cohn, Macfarlane, Yanez & Imai, 1995).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에 대한 위험지각 부족은 현재뿐 아니라 남은 여성동안의 자율적인 건강행위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때 더욱 더 관심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율은 외국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며 그 예후도 나이가 든 사람들에 비해 더 나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Suh & Shin, 2000) 연령적으로 서구의 여러 나라와는 다른 유방암 예방 및 조기발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연령대별로 유방암 위험지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많지 않다. 이러한 기초 자료가 없으면 건강행위를 유발하도록 설득력 있게 여성들을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위험지각 양상 및 그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병에 대한 위험지각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령대별로 비교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유방암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에 따른 유방암 위험지각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유방암 위험지각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제 연구변수들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연령대별 유방암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유방암 위험지각 정도와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 3. 용어 정의

- 유방암 위험 지각(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 자신의 유방암 발병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매긴 점수를 말한다.
-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General fear of breast cancer) : 유방암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는 두려움 또는 걱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을 생각하면 ‘겁’이 나는 정도를 점수로 측정할 것을 말한다.
- 정보추구 성향(Information seeking style of coping) : 위기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개인이 나타내는 습관적인 정보추구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Miller, 1987) 본 연구에서는 Miller(1987)의 MBSS (Mille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al Style Scale)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 유방암 관련 경험(Experience related to breast cancer) : 유방암과 관련된 직, 간접 사건들의 겪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유방암 이환 및 사망 건수로 측정할 것을 말한다.
- 유방암 관련 지식(Knowledge related to breast cancer) : 유방암 예방 및 조기발견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 정답을 맞힌 개수로 점수화한 것을 말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의 유방암 발병에 대한 위험지각 양상과 그 영향요인을 연령대별로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성 553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별로 대상자수를 비슷한 크기로 표출하고 지역별로는 도시(서울, 광주)와 시골(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각 연령대안에 비슷한 수로 들어가게 하였다. 자료는 2003년 2월부터 4월까지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 2인이 수집하였다. 훈련된 연구보조원 2인은 연구자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1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1인은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담당하였다. 10대 여성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 수집을 담당하였으며 서울시에 위치한 U고등학교와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수거시 총 대상자는 568명이었으나 설문지에 불성실한 답변을 한 15명을 제외하고 10대 97명, 20대 135명, 30대 133명, 40대 121명, 50대이상 67명 등 553명의 대상자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50대 이상 대상자의 경우에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가 12명으로 매우 높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이 연령대의 대상자수가 감소하였다.

### 3. 연구도구

- 유방암 위험 지각 측정 : Lee(2003)의 건강위기에 대한 낙관적 편견 측정도구의 질문 형식을 인용하여 유방암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한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지각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점수의 범위는 '가능성이 확실히 없다' 1점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 4점까지이다.
-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측정 : Lee(2003)의 건강위기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측정 도구를 참조하여 유방암에 대한 문항으로 수정한 것으로서 유방암을 생각하면 '겁'이 나는 정도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단일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두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점수의 범위는 '전혀 겁이 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겁이 난다' 4점까지이다.
- 정보추구성향 측정 : Miller(1987)가 개발한 MBSS (Mille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al Style Scale)를 다시 Zuuren과 Wolfs(1991)가 5점 척도

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도구는 개인이 위기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정보를 추구하는 'monitor'적 성향과 정보를 회피하는 'blunter'적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이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선행연구에서 위험지각과의 상관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온 것은 정보추구성향 (monitor style)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측정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사건에 대한 각성상태가 높고 신체위험을 최소화하고 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최대의 정보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 유방암관련 경험 측정 : Lee(2003)의 건강관련 경험 측정도구의 질문형식을 빌려 유방암에 대한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수정 작성하였다. 대상자의 가족 및 주위 사람이 유방암에 이환되거나 사망한 건수를 4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측정된 단일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방암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까지이다.
- 유방암관련 지식 측정 : 유방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만든 3문항으로 되어 있고, 예/아니오로 답하게 한 후 정답수를 세어 합한 점수이다. 점수의 범위는 3문항 모두 틀린 0점에서 3문항을 모두 맞춘 3점까지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8$ 로 나타났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제 연구 변수들(유방암 위험지각 정도,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정도, 정보추구성향, 유방암 관련 경험, 유방암 관련 지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유방암 위험지각 정도의 차이는 F-test 및 사후검정(Scheffe test)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제 연구변수들의 차이는 F-test 및 사후검정(Scheffe test)을 이용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연령대별 유방암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약 33세로 이들은 약 3-4명의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고 유방암의 가족력을 가진 대상자는 1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 97명(17.5%), 20대 135명(24.4%), 30대 133명(24.1%), 40대 121명(21.9%), 50대 이상 64세 이하 67명(12.1%)이었으며 10대 여성은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력이 모두 중졸이고 또 모두 미혼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특성 중에서 교육수준과 결혼여부는 성인기 여성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 2. 연령에 따른 유방암 위험지각 정도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각 연령대별 유방암 위험지각 정도는 통

<Table 2> Age-related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Variables	Age	Mean(SD)	F	p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 19	1.53(±0.54)a,c	15.79	.000*
	20 ~ 29	2.00(±0.69)a		
	30 ~ 39	1.77(±0.66)b		
	40 ~ 49	1.91(±0.83)c		
	50 ~ 64	1.31(±0.55)a,b,c		

a,b,c,d ... 사후검정(Scheffe test)결과 .05수준에서 같은 문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 p<0.00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553)	
	Frequency(%)	Mean(SE)
Age(years)	≤ 19	97(17.5)
	20 ~ 29	135(24.4)
	30 ~ 39	133(24.1)
	40 ~ 49	121(21.9)
	50 ~ 64	67(12.1)
Education(limited by 20 ≥)	middle school or less	59(12.9)
	high school	232(50.9)
	college or more	165(36.2)
Family's income/year(thousand won)	less than 10,000	90(16.3)
	10,000 ~ 29,999	151(27.3)
	30,000 ~ 49,999	217(39.3)
	more than 50,000	72(13.0)
No. of family members	1	44( 8.0)
	2	59(10.7)
	3	109(19.7)
	4	217(39.2)
	5 and more	112(20.3)
Marital status(limited by 20 ≥)	missing	12( 2.2)
	single or others	141(30.9)
	married	307(67.3)
	missing	8( 1.8)
Religion	none	137(24.8)
	christian	250(45.2)
	catholic	56(10.1)
	buddhist	81(14.6)
	other	29( 5.2)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yes	11( 2.0)
	no	542(98.0)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Table 2>. 가장 높은 위험지각을 보인 연령군은 20대였고, 가장 낮은 위험지각을 보인 연령군은 50세 이상 64세 이하 군이었으며 20대, 30대, 40대에 비하여 10대와 50대의 위험지각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연령에 따른 제 연구변수들의 차이

본 연구에서 유방암 위험 지각이외의 연구 변수들은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정도, 정보추구 성향, 유방암 관련 경험, 유방암 관련 지식 등으로서 이 변수들도 각각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3>. 우선,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사후검정에서 이 연령군과 모든 연령군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다른 연령군간에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추구성향은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군에서 가장 낮고 40대 연령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후검정에서 두 연령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또한 유방암 관련 경험의 정도는 10대에서

가장 낮으며 20, 30, 40대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40대에서 가장 높고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군에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후검정에서 10대는 20대, 30대, 40대 연령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01)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유방암 관련 지식은 10대 연령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났고 사후검정에서 10대 연령군은 모든 연령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001) 1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군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4. 연령대별 유방암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여 분석한 유방암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연령의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를 포함하여 유방암 위험지각의 예측요인을 파악하였다.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정보추구성향, 유방암 관련 경험, 유방암 관련 지식 등의 연구 변수들과 일반적 특성 중 학력, 가족수, 소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유방암

<Table 3> Age-related differences in general fear, monitor score, experience, knowledge related to breast cancer

Variables	Age	Mean(SD)	F	p
General fear of breast cancer	≤ 19	3.08(±0.84) <sup>a</sup>	15.42	.000*
	20 ~ 29	3.03(±0.80) <sup>b</sup>		
	30 ~ 39	2.89(±0.83) <sup>c</sup>		
	40 ~ 49	3.15(±0.83) <sup>d</sup>		
	50 ~ 64	2.18(±1.14) <sup>a,b,c,d</sup>		
Monitor(information seeking style) score	≤ 19	74.43(±9.63)	5.09	.000*
	20 ~ 29	73.97(±8.90)		
	30 ~ 39	75.27(±9.59)		
	40 ~ 49	77.94(±8.85) <sup>a</sup>		
	50 ~ 64	71.36(±14.50) <sup>a</sup>		
Experience related to breast cancer	≤ 19	1.21(±0.48) <sup>a,b</sup>	11.11	.000*
	20 ~ 29	1.38(±0.60) <sup>b</sup>		
	30 ~ 39	1.57(±0.78) <sup>a</sup>		
	40 ~ 49	1.76(±0.71) <sup>b,c</sup>		
	50 ~ 64	1.39(±0.67) <sup>c</sup>		
Knowledge related to breast cancer	≤ 19	1.31(±1.07) <sup>a,b,c,d</sup>	10.16	.000*
	20 ~ 29	1.73(±0.97) <sup>a</sup>		
	30 ~ 39	1.96(±0.92) <sup>b</sup>		
	40 ~ 49	2.09(±1.04) <sup>c</sup>		
	50 ~ 64	2.00(±0.87) <sup>d</sup>		

a,b,c,d ... 사후검정(Scheffe test)결과 .05수준에서 같은 문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 p<0.001

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유방암 관련 지식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4>.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유방암 위험지각을 11% 설명하였으며 ( $p<0.001$ ) 여기에 유방암 관련 지식은 0.8%밖에 더 설명력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edictor of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in all the subject

Variables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p
General fear of breast cancer	.110	.108	61.07	.000
Knowledge related to breast cancer	.118	.114	4.37	.037

2) 10대의 유방암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대 연령군만 표출하여 1)과 동일한 분석 방법을 수행한 결과 이 연령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만이 유방암 위험지각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Table 5> 그 설명력은 7.3%로 전체 대상자에 비해 설명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이 연령층에서 유방암 관련 지식은 유의한 예측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edictor of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in ≤19

Variables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p
General fear of breast cancer	.073	.061	6.12	.016

3) 20대의 유방암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대 연령군만 표출하여 1)과 동일한 분석 방법을 수행한 결과 1), 2)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령군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유방암 관련 경험이 유방암 위험지각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Table 6> 그 설명력은 각각 15.3%, 3.2%로 나타나서 이 두

<Table 6>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edictor of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in 20 ~ 29

Variables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p
General fear of breast cancer	.153	.145	20.54	.000
Experience related to breast cancer	.185	.171	4.51	.036

변수가 유방암 위험지각을 총 18.5% 설명하였다. 이 연령층에서도 유방암 관련 지식은 유의한 예측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4) 30대의 유방암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대 연령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10대 연령군과 마찬가지로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이 유방암 위험지각의 유일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더욱 낮아져서 5.2%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edictor of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in 30 ~ 39

Variables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p
General fear of breast cancer	.052	.045	6.86	.010

5) 40대의 유방암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0대 연령군에서도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이 유일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4.4%로 모든 연령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8>.

<Table 8>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edictor of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in 40 ~ 49

Variables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p
General fear of breast cancer	.044	.035	4.99	.028

6)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군의 유방암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연령군에서도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이 유일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4.2%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8>.

<Table 9>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edictor of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in 50 ~ 64

Variables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p
General fear of breast cancer	.142	.128	10.41	.002

#### IV. 논 의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1995년을 기준으로 한 2002년의 표준화 발생비가 199%로서 10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발병률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Korean National Cancer Center, 2003) 연령에 따른 발병률이 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유방암 위험 지각 정도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방암 위험지각은 20, 30, 40대의 성인여성에게 비해 1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Arnet, 2000; Cohn, Macfarlane, Yanez & Imai, 1995)에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건강위기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청소년기 여성의 유방암 위험지각 부족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건강행위 습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에서 유방암 위험지각이 10대 연령층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은 성인기 여성 집단에서 가장 낮은 위험지각을 나타내었다. 이 연령층의 유방암 관련 경험이 10대 다음으로 낮고 또한 성인기 여성에서는 가장 낮은 점을 관련지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외국과는 달리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고 또한 그러한 발병률이 최근에 들어 급증하였기 때문에 젊은 여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이 연령층의 유방암 이환 및 사망의 경험 정도가 낮아서 위험지각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보추구성향에 있어서도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최근에 들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로부터의 정보수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지각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0대와 50~64세 연령군은 위험지각이 낮은 군으로서 정확한 위험지각을 유도하기 위한 중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연령군은 낮은 위험지각을 보이는 유사함을 보이면서도 위험지각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정도는 두 군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0대는 매우 높은 두려움을 나타낸 반면에 50~64세 연령군은 매우 낮은 두려움을 나타내었고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Sweat 등(1995)도 일반적 두려움과 위험지각이 일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10대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이 유방암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7%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50~64세 연령군은 두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이 14.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10대 연령층은 현재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방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높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발병 위험은 낮게 지각하고 있고 그러한 두려움이 위험지각을 7%밖에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히 '유방암은 무서운 것'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차원의 교육이나 홍보는 이들의 정확한 위험지각을 높이는 중재로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하며, 50~64세 연령군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려움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발병위험을 낮게 지각하고 있고 두려움이 위험지각을 14%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메시지나 교육이 10대에 비해 위험지각을 높이는 중재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확한 위험지각을 유도하기 위한 중재전략은 연령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즉 유방암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육과 장년과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건간호사의 교육은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적 두려움 이외에 유방암 위험지각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는 지식과 경험이었다. 지식 측정에 활용된 질문은 '지방이 많이 포함된 기름진 식이를 하면 유방암에 더 잘 걸릴 수 있는가', '모유수유를 하지 않으면 유방암에 더 잘 걸릴 수 있는가', '정기적인 유방 자가 검진 및 유방 조영술이 유방암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는가' 등 유방암 위험요인과 조기발견 방법에 대한 3문항이었는데 10대는 평균 1.3개, 20대는 평균 1.7개, 30대 이상은 평균 2개를 맞춘 것으로 나타났고, 3개를 모두 맞춘 대상자는 172명(31.1%), 정답을 하나도 맞추지 못한 대상자는 75명(13.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상자의 유방암 관련 지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uh 등(1998)의 조사에서 유방암의 경우 폐암, 간암 등에 비해 50% 이하의 정답율로 지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지식은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유의한 예측요인이 되지 못하였고 전체 대상자 자료에서만 유방암 위험지각을 0.8% 정도로 매우 미약하게 설명하였다. 또 다른 변수인 유방암 관련 경험은 20대 연령에서 유방암 위험지각의 유의한 예측요

인으로 나타났는데 Weinstein(1984)은 과거에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위기 인식에 있어 낙관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Sweat 등(1995)도 에이즈에 대한 위험지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자들의 경우 주위에 에이즈로 사망하였거나 아팠던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즉 경험의 부족을 제시하였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지식이 유방암 위험지각의 예측요인으로서 높은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반면에 20대 연령층에서는 유방암 관련 경험이 유방암 위험지각의 또 다른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많은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 중재의 한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보건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의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인지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단,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편의표출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제한을 가지며 연구의 목적이 유방암 위험지각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유방암 자가검진과 같은 건강행위 이행을 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지각과 건강행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유방암 위험지각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64세의 여성 553명으로 하였으며 각각 10대 97명(17.5%), 20대 135명(24.4%), 30대 133명(24.1%), 40대 121명(21.9%), 50대 이상 67명(12.1%)을 편의표출 하였다. 자료는 자가보고형식의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F-test 및 사후검정(Scheffe test),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연령대별 유방암 위험지각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F=15.79, p=.000). 10대와 50대의 위험지각 정

도는 20, 30, 40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정도(F=15.42, p=.000), 정보추구 성향(F=5.09, p=.000), 유방암 관련 경험(F=11.11, p=.000), 유방암 관련 지식(F=10.16, p=.000) 등 제 연구변수들도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50~64세 연령에서 가장 낮고 모든 연령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정보추구성향은 50~64세 연령에서 가장 낮고 40대 연령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두 연령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또 유방암 관련 경험은 10대에서 가장 낮고 20, 30, 40대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40대에서 가장 높고 50~64세 연령에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0대는 20대, 30대, 40대 연령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유방암 관련 지식은 10대에서 가장 낮고 10대와 다른 모든 연령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3. 전체 연구대상자의 유방암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정도와 유방암 관련지식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수는 위험지각의 11.8%를 설명하였다. 대상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유방암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분석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20대는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유방암 관련 경험이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총 18.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다른 모든 연령군은 유방암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만 유일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각각 10대 7.3%, 30대 5.2%, 40대 4.4%, 50~64세 연령 14.2%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첫째, 여성의 유방암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중재전략은 연령에 따른 유방암 위험지각 양상을 고려하여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 둘째, 유방암 관련 지식은 유방암 위험지각의 예측요인으로서 높은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반면에, 20대 연령층에서는 유방암 관련 경험이 유방암 위험지각의 또 다른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인지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프로그램이 단순한 지식전달의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자의 주관적인 위험지각이 정확한 위기지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실제적 위험을 함께 측정하고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한국 여성의 실제적 유방암 위험을 사정하는 신뢰도 높은 도구들이 개발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Aiken, L. S., Fenaughty, A. M., West, S. G., Johnson, J. J., & Lockett, T. L. (1995). Perceived determinants of risk for breast cancer and the relations among objective risk, perceived risk, and screening behavior over time. *Women's Health, 1*(1), 27-50.
- Arnet, J. J. (2000). Optimistic bias in adolescent and adult smokers and nonsmokers. *Addictive Behaviors, 25*(4), 625-632.
- Choi, K. O. (1994). A study of women's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BSE.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4*(4), 678-695.
- Cohn, L. D., Macfarlane, S., Yanez, C., & Imai, W. K. (1995). Risk-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adolescents and adults. *Health Psychology, 14*(3), 217-222.
- Hopwood, P. (2000). Breast cancer risk perception: what do we know and understand? *Breast Cancer Research, 2*(6), 387-391.
- Katapodi, M. C., Lee, K. A., Facione, N. C., & Dodd, M. J. (2004). Predictors of perceived breast cancer risk and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risk and breast cancer screening: a meta-analytic review. *Preventive Medicine, 38*(4), 388-402.
- Korean National Cancer Center(2003). *2002 Annual Report of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http://www.ncc.re.kr/>
- Lee, D. S. (2003). *A structural model development of health insensi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venthal, H., Kelly, K., & Leventhal, E. A. (1999). Population risk, actual risk, perceived risk, and cancer control: a discussion. *Monographs, 25*, 81-85.
- Miller, S. M. (1987). Monitoring and blunting: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to assess styles of information seeking under threat.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45-353.
- Sadler, G. R., Ryujin, L. T., Ko, C. M., & Nguyen, E. (2001). Korean women: breast cancer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BMC Public Health, 1*(7), 1471-2458.
- Suh, C. O., & Shin, H. S. (2000). *The national survey of breast carcinoma treatment in Korea and the evaluation of cost-effectiveness of radiotherapy*. Korean National Cancer Control Progra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OK.
- Suh, S. L., Jung, B. R., So, H. S., & Tae, Y. S. (1998). A study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elde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the five major cancer in Korea. *J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1), 268-280.
- Sweat, M. D., Nopkesorn, T., Mastro, D., Sangkharomya, S., MacQueen, K., Pokapanichwong, W., Sawaengdee, Y., & Weniger, B. G. (1995). AIDS awareness among a cohort of young Thai men: exposure to information, level of knowledge, and perception of risk. *AIDS Care, 7*(5), 573-589
- Weinstein, N. (1984). Why it won't happen to me: Perceptions of risk factors and susceptibility, *Health Psychology, 2*(1), 11-20
- Zuuren, F. J., & Wolfs, H. M. (1991). Styles of information seeking under threat: personal and situational aspects of monitoring and

blun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2, 141-149.

- Abstract -

## A Study on Age-related Difference in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and Influencing Predictors

*Lee, Dong-Suk\*·Son, Haeng-Mi\*\**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ge-related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and the age-related differences in predictors of risk perception.

**Method:** The subjects were 553 women aged from 15 to 64 who lived in Seoul, Kwang-Ju, Jeon-nam province. Data was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s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test with Scheffe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0.0 version. **Result:** Risk perception of breast cancer was different by age group. Especially, risk perception in teenagers and the 50~64 years group was lower than the other groups. Additionally, general fear of breast cancer, information seeking style, experience, and knowledge were different between the age group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risk perception indicated the following significant predictors: general fear and knowledge in all the subjects, general fear and experience in the 20~29 years group, and general fear in the other age group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messages for breast cance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should be designed differently for each age group.

Key words : Breast cancer, Risk perception, General fear, Information-seeking style, Knowledge

---

\*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